

이번 성탄에는 멋진 선물을 할 거예요!

김지현_크리스티나 · 본지 편집부

학습목표

어려운 이웃을 도와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임을 안다.

· 준비물 : 색도화지, 가위, 풀, 필기도구, 쿠폰을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재료

시작 기도

좋은신 하느님,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고 당신께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도입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벌써 12월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잘하고 있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야기를 듣는다.)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미사를 드리겠다는 친구도 있어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니 선생님 마음이 참 든든해요.

요즘 거리에 나가면 눈에 띄는 풍경이 하나 있어요. 빨간 자선냄비 앞에서 ‘딸랑딸랑’ 종을 치면서 “불우한 이웃을 돕읍시다!”라고 외치는 구세군의 모습이에요. 요즘 처럼 추운 계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힘든 시간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더 필요한 시기죠.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을 뒤로 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나누는 마음, 그것이 우리 이웃에게는 무엇보다 좋은 선물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욕심을 버리고 이웃

과 나누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봐요.

전개

예화1

어느 날 한 꼬마가 값비싼 화병에 손을 넣었다가 빼지 못하고 있었다. 꼬마의 아버지도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허사였다. 아버지는 화병을 깨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아이에게 말했다. “자, 한 번만 더 해 보자. 아빠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똑바로 댄 다음에 손을 앞으로 당겨 보렴.”

“아빠, 전 아빠처럼 그렇게 손을 댄 수가 없어요. 그럼, 동전이 떨어질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 중에서 발췌)

이야기 잘 들었죠? 꼬마가 화병에서 손을 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야기를 듣는다.) 맞아요. 동전 하나 때문이었어요. 꼬마의 모습이 어때 보이나요? (이야기를 듣는다.) 참 어리석어 보여요. 손을 펴고 동전을 버리면 손도 쉽게 뺄 수 있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텐데 말이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아주 조금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조금씩 도와 주면 마음이 훨씬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말이죠. 선생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 줄게요.

예화2

아들이 갓을 따고 있었다. 아버지가 갓을 광주리에 닿으면서 말했다. “까치방으로





값서너 개쯤은 남겨 두어야 한다.” “우리 먹기에도 부족한데 왜 까치밥을 남겨야 하죠?” 아들이 묻자 아버지가 대답했다. “새들과도 나누어야지.” 그 말에 아들은 고개만 가우뚱거렸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농부가 콩을 심을 때 세 알씩 심는단다. 왜 그러는 줄 아니?”라고 물으며 이야기를 이었다. “한 알은 공중의 새들 몫이다.” 아들이 “또 한 알은요?”하고 물었다. 아버지는 “땅 속의 벌레들 몫이지.”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들이 알겠다는 듯이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럼 한 알만이 주인의 몫이군요.”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말했다. “나누는 마음 없이 한 알만 심어 수확을 기대하다가가는 빈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 중에서 발췌)

이야기 잘 들었나요? 내 것을 내놓는다고 해서 빈 털털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나눌 것을 나누지 않고 모으기만 한다고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재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 먹거나 녹이 슬어 못 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서는 좀 먹거나 녹이 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마태 6, 19-21)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이 물질적인 것만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봉사하려는 마음까지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보여 주신 행동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많은 단체나 방송국, 신문사에서 불우이웃을 위해 모금을 하지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 주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듣는다.) 친구들의 이야기 잘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적어 쿠폰을 만들어 봅시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일이 생길 때 ‘짠’ 나타나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작업 사랑의 쿠폰 만들기

준비물 : 색도화지, 가위, 풀, 필기도구, 쿠폰을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재료



쿠폰 예시



상자에 넣어서 선물할 수 있다.

도화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무거운 물건 함께 들어 주기’ ‘기도해 주기’ ‘심부름하기’ ‘집안 청소 돕기’ 등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형이나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적어 보세요.

우리가 만든 쿠폰은 활동 내용에 따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면 좋겠어요.

정리

예수님께서서는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마라.”(마태 5, 42)고 하시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 8) 하셨어요. 이번 성탄에는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 주면 어떨까요? 거창하게 봉사활동을 하러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예요. 나눔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며 우리 이웃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마침 기도

언제나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느님,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또한 저희들과 함께하셔서 다가오는 새로운 해를 잘 보낼 수 있게 은총을 내려 주세요.

※참고한 책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1(엘리스 그레이 편저, 두란노, 2002)